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손글씨전

『그날을 쓰다』 - 전주 전시계획

1 사업 개요

- ◆ 전시명: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손글씨전, 『그날을 쓰다』
- ◆ 전시 기간: 2022. 9. 24.(토)~ 10. 1.(토)
- ◆ 전시 시간: 매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0월 1일: 12시 종료)
- ◆ 전시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3층 전시장 갤러리 I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31)
- ◆ 참여 작가: 세종손글씨연구소 작가 55명
- ◆ 주최: 4.16기억저장소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 ◆ 주관: 세종손글씨연구소,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 후원: 4.16연대, 사)더불어숲, 잼에스디, 도서출판 걷는사람

2 사업 추진 목적

-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 공동체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도록 한다.
- 청소년-교사-시민들이 세월호의 아픔과 교훈을 함께 보듬는다.
-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기억을 다양한 시선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기록을 문화적으로 담아내고 전달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공감과 연대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3 구성

- 2022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8주기이다. 2019년부터 4.16기억저장소(소장 이지성)가 주관하여 세월호 유족과 세월호 관련 단체 사람들 100명을 인터뷰한 《4.16 그날을 말하다》 구술자료 100권이 출간되었다. 55명의 손 글씨 작가들이 《그날을 말하다》 100권의 책을 읽고, 100개의 작품을 붓글씨로 써서 안산을 시작으로 전시 제목 『그날을 쓰다』 전국 순회 전시를 기획하였다.
- 구술증언록 《4.16 그날을 말하다》 100권을 토대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한 유가족, 생존자 부모, 참수사, 동거차도 어민 등 투쟁의 기록을 전국(세종, 서울, 부산, 양평, 군산, 용인, 청주, 대전, 아산 등)에서 활동 중인 작가 55명이 읽고, 신영복체를 사용하여 붓글씨로 작품을 창작하였다.
- ‘그날을 말하다’를 토대로 작업한 신영복체 손 글씨를 공간 구성에 맞춰 배치한다.(예시 작품 이미지 첨부)

4 참여 단체 / 작가 소개

- 작가들은 신영복 한글 민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세종손글씨연구소 회원들이 주를 이루며, <더불어숲> 글씨모임 서여회(書如會) 회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참여 작가의 지역도 다양하다. 세종, 대전, 청주, 수원, 용인, 양평, 부산, 인천, 제주, 서울, 논산, 군산, 공주 등. 전문작가보다 대부분 생활인이며, 취미로 글씨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파견 교사, 어린 시절 미국 생활하다 한국 와서 대학 다니는 학생도 참여한다.
- [세종손글씨연구소]는 전통서예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감수성을 담아내는 글씨를 공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30여 년 동안 신영복 서체를 연구해온 김성장 소장 주도로 설립되어 대전, 세종, 공주, 옥천, 서울 등에서 신영복 민체를 교육해왔다. 회원 1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2017년 남북 평화를 주제로 한 전시 등 주로 사회적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계속해왔으며, 그동안 세월호, 노무현, 전태일, 김남주를 주제로 삼았다.

- **[더불어숲]**은 신영복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단체로서, 신영복의 사상과 활동을 확산시키려 애쓰고 있다. **서여회(書如會)**는 신영복 붓글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로 학습과 전시를 계속해왔다.
- **[손 글씨 참여 작가]**: 강민숙 강영미 강운도 곽미영 김광오 김미정 김미화 김선 김선우 김성장 김수경 김승주 김윤주 김정혜 김효성 김희선 김희영 남미희 두메 류지정 문명선 문영미 박행화 배숙 백인석 손종만 송정선 신지우 신현수 양은경 엄태순 우진영 유미경 유미희 윤은화 윤정환 이대형 이도환 이미지 이상필 이채경 전경희 전선혜 정상희 정진호 조성숙 조원명 최성길 최우령 추연이 한미숙 허성희 홍성옥 홍혜경 황해경

5 안내 사항

1. 전시 지역주관단체 문의처

♣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 063-905-0218 • 법인폰: 010-2050-0650
- 팩스: 0504-499-9364 • 이메일: jb-blue21@daum.net
- 주소: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6(3층)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2. 개막식

- ▶ 시간: 2022년 9월 24일(토) 오후 3시 ~ 4시
- ▶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3층) 갤러리 I

시간	내용	출연자/세부 내용	비고
15:00	개회 및 내빈 소개	사회자	
15:05	개회 인사	세종손글씨연구소 김미화 부소장 사)더불어숲 정한진 사무국장	
15:10	지역주관단체 인사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정우식 이사장	
15:13	격려사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15:15	북 토크 한마디	416연대 문규옥 군산운영위원 세종손글씨연구소 손글씨 작가 • 전시 개요 설명: 김미화 • 나와 전시회: 유미희, 홍성옥, 류지정, 전선혜, 유미경	
15:30	마무리	사진 촬영, 시연 준비	
15:40	글씨 시연	세종손글씨연구소 홍성옥 외 작가들	

*** 개막식 행사 당일 오후 손글씨 참여 작가들이 현장에서 '엽서에 손글씨 써주기' 행사를 진행 예정**

6 기대 효과

- 세월호 참사의 투쟁 기록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구술증언록을 읽고, 이를 토대로 전국의 작가들이 작업하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시선 속의 참사의 기억을 보여줄 수 있으며, 아픔만이 아닌 안전 불감증의 현실을 힘이 느껴지는 글씨체를 통해 각 작가의 말로 전달한다.
- 그저 부드럽지만은 않으며 눈에 각인시켜주는 글씨는 관람객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기록을 전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력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 우리 사회 공동체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며,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공감과 연대의식을 높여나가는 데 문화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